

《開会辞》  
《개회사》

中川 和雄

나카가와 가즈오

第2回 “日韓こころの交流” 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委員長

제2회 “한일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실행위원회 위원장

## 開会の辞



中川 和雄

第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会  
委員長

本日、第2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ユニバーサル財団をはじめ関係者のご協力により、ここ大阪の地で開くことができましたことをまずもって厚く御礼申し上げます。

昨年、日本と韓国の架け橋と、ともに生きる国際社会を目指す「共生」という理念のもと、第1回シンポジウムを韓国済州島におい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専門性の開発と将来展望」と題し開催し、両国より多数のご参加を得、盛会裡に終わったことはまだ記憶に新しいところでございます。

さて、現下の日本の社会福祉の現状、とりわけ高齢社会における現状は急速な高齢化のもと激変の時代へと入っております。いわゆる都市化の中の孤独死に代表される高齢者、障害者の方々と地域の係わり等、高齢福祉社会の複雑多様化は益々進んでおります。

また、これら弱者を支える福祉サービス関連の事業参加に企業が積極的に乗り出すなど日本の介護保険制度の改変に合わせ、激動の時代へ入っております。一方、韓国においても国家レベルで介護保険の検討が進められており、今後益々地域との係わりを重要な要素としてもつ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機能、役割分担、位置付けなどが重要な意義を持つことと思われまます。

このような時期に、今回は韓国のみならず英国、米国を含めた国際的な視野にたった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位置付け、ならび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自身の資質の向上、役割などについて研鑽の機会を持たせた事は大きな喜びとするところであります。

どうか最後までご研鑽頂きますようお願い申し上げます。

終わりにりましたが、遠路はるばる起こしいいただきご講演を頂く江南大学、高両坤先生を始め、韓国側の諸先生、及び日本側からご講演を頂く大橋謙策先生を始め諸先生や関係者の皆様方に厚く御礼を申し上げ開会の辞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 개회사



나카가와 가즈오

제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실행위원회  
위원장

오늘 제2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을 유니벨재단을 비롯, 관계자 여러분의 협력으로 이곳 오오사카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에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작년 한국과 일본의 가교로서, 더불어 사는 국제사회를 지향한 ‘공생’의 이념 하에 ‘사회사업가의 전문성 개발과 장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1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을 양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 제주도에서 성황리에 마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현재의 일본의 사회복지 현상, 특히 고령사회의 현상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위 도시화의 와중에서 고독사로 대표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 고령복지사회의 복잡성과 다기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이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관련사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격동의 시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개호보험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중요한 요소로 하는 사회사업가의 기능, 역할분담, 위치 등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번에는 한국은 물론 영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시각에서 사회사업가의 위치와 자질향상, 역할 등에 대해서 연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 먼 길을 오신 강남대학교의 고양곤 선생님을 비롯하여 한국 측의 여러분, 그리고 일본 측 발표자이신 오오하시 켄사쿠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 및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개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